



길림성의 겨울, 스키 '열풍'으로 뜨겁다

새 빙설시즌 우리 성 여러 스키장 스케치



▲ 새 빙설시즌에 들어선 이래 전 성 여러 스키장들에서는 자연 우세에 발맞추고 시설과 서비스를 적극 제고하면서 더욱 많은 새로운 '놀이방'들을 출범시켜 전국 각지의 스키애호가들을 열정적으로 맞이하고 있다. 사진은 관광객들이 아시아에서 가장 큰 북대호스키리조트에서 빙설의 즐거움을 만끽하고 있는 장면이다.

우리 성의 여러 스키장들이 룩속 개장됨에 따라 스키애호가들의 전국인 길림성의 겨울이 끓어오르고 있다.

북대호스키리조트내에는 여러갈래 스키 코스들이 멀리 하늘가에 뻗어있다. "고급 스키 코스 도전에 성공하니 정말 중독적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호북성 무한에서 온 류선생은 특별히 북대호 스키장에 와서 속도와 열정을 느꼈다고 말했다. "잔잔한 바람과 분설(粉雪)이 있어 그야말로 우리 스키애호가들의 천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장백산만달국제휴양지 스키장에 들어서면 하얀 눈으로 뒤덮인 장려한 겨울 풍경이 한눈에 들어온다. 스키애호가들은 알록달록한 스키복을 입고 눈길을 질주하며 아름다운 호선을 그리고 있다. 올해 장백산만달국제휴양지 스키장은 기존의 43개 스키 코스 외에 8개의 취미형 스키 코스가 추가돼 초급, 중급, 고급의 야간 조명 스키 코스가 전면 커버됐다. 빙설관광 기반시설에 대한 투입을 확대

하는 동시에 특별히 300여명의 '휴가보조원'을 증가하여 따뜻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스키애호가들이 즐겁게 놀고 편안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만과송화호휴양지 스키장 역시 드바쁜 광경이다. 스키장 직원들은 스키 장비의 임대부터 스키 기교의 전수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부 사항에서 스키 사업에 대한 사랑과 집착을 보여주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심양에서 온 란봉은 이미 련속 10년간 만과송화호휴양지에서 스키를 즐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자에게 그를 가장 매료시킨 것은 이곳의 완벽한 부대시설과 세심한 서비스라고 알려주었다.

취재 가운데서 기자는 전국 각지에서 온 스키애호가들을 만났다. 그들 중에는 혼자 온 스키애호가도 있고 부모자식간의 시간을 즐기는 따뜻한 가족도 있었으며 친구와 동반하여 온 젊은이들도 있었다.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길림성의 스키장은 시

설이 완벽하고 봉사가 주도면밀할 뿐만 아니라 눈의 질이 좋아 스키에 호가들에게 이상적인 운동 장소라고 표시했다.

"나는 줄곧 스키타기를 매우 즐겨했다. 이번에 특별히 남방에서 달려왔는데 바로 이곳의 빙설 매력을 체험하기 위해서이다." 광둥성에서 온 한 스키애호가는 기자에게 "길림성의 스키장은 진정으로 저의 시야를 크게 넓혀주었고 스키 코스의 양이나 질 모두 상상을 초월했다."고 말했다.

자식을 데리고 스키 타러 온 한 부모는 길림성의 스키장은 어른들에게 적합할 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아주 좋은 단련과 오락 장소라고 표시했다. "이곳에서 아이들은 스키 기교를 배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뜻이 맞는 친구들도 사귄 수 있어 성장에 매우 도움이 된다."고 그는 말했다.

길림성의 스키장들은 낮시간대 인기는 물론 야간시간대에도 젊은층과 직장인들이 많이 찾고 있었다. 최근 만과송화호리조트 스키장은 야간스키 시간대에 '빙설쇼' 등 일련

의 국풍 공연 행사를 선보여 스키장에 짙은 문화적 분위기를 더하기도 했다.

만과송화호리조트 스키장 사업일군의 소개에 따르면 야간스키의 시야를 보장하기 위해 스키장에서는 산 전체에 100여개의 등대를 설치했다. 밤이 되면 스키애호가들은 흰 눈을 밟고 별하늘을 머리에 인 채 멀리 도시의 천가만호 등불을 바라보면서 낭만적인 분위기에 젖어든다. 야간스키의 출시는 스키장의 경영 시간을 연장시켰을 뿐만 아니라 직장인과 외지 관광객들의 스키운동 수요에도 만족을 주었다.

이외에도 관광객들이 머물게 하고 잘 놀 수 있게 하기 위해 많은 스키장들에서는 갖은 방법을 동원해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하고 있었다.

례를 들어, 북대호 스키장에서는 100대의 제설기를 새로 추가하고 개방된 스키 코스가 64개에서 74개로 늘어났으며 고속케블카는 11개에서 13개로 늘어나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지 않아도 되었다. 스키 코스 면적은 239헥타르에서 275헥타르로, 호텔 총 침대수는 9,000개로 늘어났다. 휴양지에는 여러 곳에 셀프 서비스 설비들이 새로 추가되었으며 호텔 투숙이 더욱 빨라지고 더 많은 표층은 셀프 티켓 인출로 더 편리해졌다. 이러한 업그레이드 개조 조치들은 스키애호가들에게 더욱 편안한 스키운동 환경을 제공해주었다.

장춘 련화산 스키장에서 많은 관광객들은 올해 스키장에 은하세 로봇트 강아지 몇마리가 생겨난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로봇트 강아지들은 련할하게 눈발을 누비며 대렬을 지어 순찰하고 물자를 운송한다. 또한 관광객들과 소통할 수 도 있고 사진을 찍을 수도 있으며 심지어 일상 순라검사와 긴급구조에도 참여할 수 있다고 한다.

장춘 련화산 스키장 마케팅총합소 총위는 이런 로봇트 강아지들은 선진적인 센서(传感器)와 영상기술을 갖추었는바 앞으로는 로봇트 강아지가 썰매를 끄는 등 활동도 개발하여 스키애호가들에게 다양한 체험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 길림일보

2024-2025 연변 새 빙설시즌 '설역비경 로리커'에서 개막



◎ 빙설의 새로운 우세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빙설의 새로운 동력에너지 격발

7일, 화룡시정부와 화룡시문화관광국에서 주최하고 화룡시문화관광국, 연변길림문화관광유한회사에서 주관한 2024-2025 연변조선족자치주 새 빙설시즌 가동식이 화룡시 로리커관광구에서 개최되었다. 성문화관광청 2급 순시원 전운봉이 행사에 참석해 2024-2025 새 빙설시즌 가동을 선포했다. 연변조선족자치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주정부 부주장인 차건위가 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

차건위는 다년간 연변은 '빙천설지도 금산은산'이라는 리념을 충실히 실천해 빙설자원을 문화관광에 융합시키고 상업무역 련결을 통해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했다. 그는 "새 빙설시즌을 맞아 연변은 문화관광업을 기둥산업으로 육성하는 전략적 높이에서 서서 기회를 다잡아 빙설의 새로운 우세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빙설의 새로운 동력에너지를 격발시켜야 한다. 동시에 빙설제품을 개발하고 새로운 빙설 시장을 개척하며 새로운 빙설 서비스를 제공해 '빙설, 온천, 미식, 겨울 표류'의 독특한 우세로 '장백천하설, 길림의 아름다움은 연변에' 브랜드의 '새로움'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동식에서 로리커풍경구와 호통만

상문화미디어그룹이 협력협의를 체결했다. 쌍방은 전국 최초의 설역 미니극, 길림성 최초의 문화관광 미니극 《호수의 사랑(湖之恋)》을 공동으로 제작하게 된다. 이날 또 로리커풍경구와 길림성화평대극장그룹이 공동 제작한 몰입식 주제 공연 《북경의 비밀번호(北境密码)》현판식도 거행되었다.

가동식후 행사에 참가한 6,000여명의 귀빈 및 관광객들은 풍경구를 둘러보고 삼림과 설원을 지나는 설렘과 스노모빌의 걱정, 눈밭에서 난로를 둘러싸고 차를 끓이는 등 따뜻한 체험하면서 설역의 비경 로리커의 풍채를 실감하고 연변의 독특한 빙설문화 매력을 느껴보았다.

료해에 따르면 2024-2025 새 빙설시즌에 연변은 풍부하고 다채로운 빙설 행사를 전개하여 문화와 관광 산업의 융합 발전을 적극 추진하고 빙설관광 명소와 명품 관광 코스를 건설하며 따뜻한 원소로 령자원을 활성화하고 령자원의 열효과 방출을 추진하게 된다. 아울러 분설자원을 리용하여 문화오락생활을 풍부히 하고 소비 수요를 촉진하며 도시 영향력을 확대하고 연변 문화관광의 겨울철 IP 지역 브랜드력을 널리 선전하여 '천만명의 관광객을 연변에 끌어들이는' 목표를 실현하고 '노래가 아름다운 연변, 춤이 아름다운 연변'을 보여주는 동시에 '얼음이 아름다운 연변, 눈이 아름다운 연변'을 구축하게 된다.

/ 김영화 김가혜 기자



정세명, 장춘한국인(상)회 제 18기 회장으로

- 장춘한국인(상)회 리·취임식 및 2024 송년의 밤 행사 성황리에



▲ 김희훈 회장으로부터 장춘한국인(상)회 회기를 전달받은 정세명 신임 회장

7일, '장춘한국인(상)회 리·취임식 및 2024 송년의 밤 행사'가 대화미거호텔에서 성황리에 개최된 가운데 정세명(41)이 김희훈(41)회장으로로부터 장춘한국인(상)회 회장 바통을 이어받았다.

이번 행사는 장춘한국인(상)회

지난 한해 동안의 사업에 대한 총화와 회고일 뿐만 아니라 신임 지도부의 탄생에 중요한 무대를 제공했다. 이날 행사에는 길림성외사판공실 정강 주임, 주심양 한국총령사관 박솔기 령사 등 중한 량국 인사 2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의 시작과 함께 회장 퇴임식이 진행되었다. 지난 2년간 장춘한국인(상)회에 기여한 회장 김희훈의 공로를 표창하기 위한 감사패 수여식이 마련되었다. 김희훈장은 퇴임사에서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함께 많은 어려움을 극복해왔고 일련의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재임 기간 동안의 일과를 회고하고 나서 "앞으로 새로운 지도부의 인솔하에 한국인(상)회가 더욱 휘황한 미래로 나아갈 것이라 굳게 믿는다."고 미래 발전을 기원했다.

이어 책임과 사명의 전승을 상징하는 한국인(상)회 회기 전달식이 있었다. 정식으로 바통을 이어받은 장춘한국인(상)회 제 18기 신임 회장 정세명은 취임사에서 "새로운 회장이

되어 영광이며 전임 회장의 정신을 이어받아 한국인(상)회의 발전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전하면서 "앞으로 각측과의 협력 관계를 계속 심화하고 한중 량국간의 경제문화교류를 적극 추진해 회원 기업에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또 "미래 사업의 새로운 비전과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내부 건설을 강화하며 봉사의 질을 제고하여 한국인(상)회의 사회적 영향력을 강화하는데 진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길림성외사판공실 정강 주임, 주심양 한국총령사관 박솔기 령사, 중국한국인회 동북 3성련합회 김정렬 회장 등 중한 량국 인사들이 잇달아 무대에 올라 축사를 했다. 이들은 장춘한국인(상)회의 사업을 높이 평가하고 새로운 지도부에 대한 큰 기대를 표달했다. 길림성외사판공실 주임 정강은 축사에서 "장춘한국인(상)회가 신임 회장의 인솔하에 더욱 발발해 자신의 우세를 발휘하고 더욱 개방된 시야와 충만한 열정으로 중

한 량국의 끊임없는 발전을 위해 더욱 적극적인 기여를 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 량국의 경제 발전과 사회 진보를 위해 협력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케익 커팅식이 마무리되면서 행사는 즐거운 송년의 밤으로 접어들었다.

다채로운 문화공연, 장끼자랑, 게임, 행운권 추첨 등이 진행된 가운데 참가자 모두가 잊지 못할 밤을 보내면서 서로에 대한 존중과 우정을 돈독히 하고 함께 한해 동안의 로고를 되돌아보고 곧 다가오는 새해의 아름다운 축복을 전했다.

이번 행사는 성공적인 임기 교체식일 뿐만 아니라 다문화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는 중요한 장이며 장춘한국인(상)회가 새로운 지도부의 인솔하에 개방과 포용 정신을 견지하고 혁신 발전의 길을 끊임없이 모색하며 더욱 긴밀한 중한 관계 구축에 힘을 보탬 것임을 상징한다고 장춘한국인(상)회측이 밝혔다.

/ 오건 김영준 기자

창작 뮤지컬 〈꿈·춘향〉 첫 공연



12월 6일, 연길시조선족무형문화유산보호센터에서 창작한 뮤지컬 〈꿈·춘향〉이 연길시문화관 극장에서 첫 공연의 막을 올렸다.

〈꿈·춘향〉은 민간에서 널리 알려진 《춘향전》 이야기를 소재로 하고 곡에 풍격을 바탕으로 했다. 리몽룡과 성춘향의 사랑이야기를 주선으로 동화와 현실을 넘나드는 형식을 기발하게 활용해 정경계 연출했다. 전체 공연은 꿈을 찾는 것과 만남, 리별,

충정, 재회, 꿈을 이루는 여섯가지 상황을 포함하며 느리고 긴박하고 초조하고 격정적인 창작 음악에 맞추어 다양한 무용 형제 동작과 민족복식, 세트, 조명 등 무대예술을 서로 융합하여 다채로운 시각으로 젊은이들의 아름다운 사랑에 대한 동경을 풀이하였다.

〈꿈·춘향〉총감독 김영주의 소개에 따르면 이 뮤지컬의 준비 시간은 근 1년으로 연변의 주요 창작인원들과 공연배우들을 핵심으로 했다. 〈꿈·춘향〉의 혁신적인 표현형식과 독특한 예술풍격은 중국 뮤지컬의 발전에 또 다른 색채를 더해주었는바 더욱 많은 관객들이 뮤지컬의 다원적인 매력을 느낄 수 있고 감상 과정에서 공명을 느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활과 감정에 대한 동질감을 증강시켰다.

/ 연길뉴스넷